

\* 2011년 10월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자유주의 정책심포지움<보수주의의 현재와 미래>에서 발표한 논문

##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자유주의에 비춰본 보수주의-

민경국(강원대/경제학)

### I. 머리말: 철학이 빈곤한 한국의 보수주의

한국사회에서 자유주의라는 말은 듣기가 어렵다. 그 대신에 보수주의라는 말이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가? 보수주의라고 자처하는 보수시민단체와 지식인들은 단순히 보수주의라는 명분으로 좌편향적 정책에 대한 반대가 매우 적극적이다.

그러나 스스로 보수정당이라고 자처하는 한나라당은 좌파정책을 서슴없이 채택하면서 자신이 지향하는 이념을 ‘따뜻한 보수주의’라고 말한다. 보수신문이라고 자처하는 매체도 자유 자본주의와 상이한 이념체계로서 이른바 “자본주의 4.0”을 지지하기도 한다.

이쯤에서만 보아도 보수주의의 내용이 매우 불분명하고 그래서 우리를 혼란시킨다.<sup>1)</sup> 흥미로운 것은 보수주의가 어떤 가치를 왜 추구하는가, 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정책이나 입법정책이 필요한가의 논의도 없다. 보수주의라고 자처하는 학자나 정치인들은 입법정책과 경제정책의 도출을 가능하게 하는 보수주의의 사회관(觀), 시장관, 국가관, 법관에 대한 고유한 철학도 없고 이론도 없다. 그래서 보수주의의 철학적 빈곤이라고 말하는 편이 옳다.

우리를 더욱 더 당혹하게 만드는 것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동일시하는 사회 일각의 시각이다.<sup>2)</sup> 왜 보수주의가 자유주의와 동일한지에 대한 철학적 이론적 논의도

1) 양동안 교수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양동안, 2011: 124) “우리나라에서 보수주의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는 했지만 그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수주의의 의미와 내력을 정확히 알고 사용하는 예는 많지 않다.”

2) 남시욱은 보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정치적 이념으로 한다.”고도 말한다.(남시욱

없다. 보수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자유주의는 보수주의 틀 속에 있는 이념이란 말인가? 이는 자유주의는 독립적으로 발전해온 이념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상한 일이 또 하나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와 관련해서는 보수주의라고 자처하는 지식인들은 제1항과 2항을 동시에 중시하고 있다.<sup>3)</sup> 그러나 자유주의자라면 제2항은 잘못된 조항이라고 말하면서 제1항을 고수한다. 물론 야당과 사회주의자들은 제1항을 경시하고 제2항을 중시한다(유원일, 2011)<sup>4)</sup>

이와 같이 보수주의 개념을 사람마다 다르게 이용하기 때문에 정치적 가이드로서 아무런 역할도 수행할 수 없고 이념적 혼란만을 초래할 뿐이다. 정치적 언어가 불분명하면 그것은 정치적 행동을 안내할 수 없다. 그래서 하이에크가 공자(孔子)의 말을 인용하여 어휘의 정확한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하듯이, 말이 의미를 잃게 되면 우리는 손과 발을 움직일 여지가 없다. (Hayek, 1988: 106). 최 광 교수는, 이념적 언어가 정확하지 않으면 공공정책에 대한 논의가 어렵다고 말한다.(최 광, 2011). 양동안 교수는 사상과 관련된 정치적 용어를 부정확하고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국가 재앙”이 초래한다고 경고하고 있다.(양동안, 2011: 6)

따라서 서구에서는 보수주의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가, 보수주의의 정치적 원칙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보수주의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하이에크는 자신의 유명한 논문 “왜 나는 보수주의가 아닌가?”라는 도전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하이에크, 1960/1998 II: 321). 그가 말하는 것처럼 보수주의는 실용주의적, 기회주의적 이념인가?<sup>5)</sup> 혹은 슈메이커가 주장하고 있듯이(Schumaker, 2008/2010: 575) 보수주의는 확고한 원칙이라기보다는 단지 기질적 성향(변화를 싫어하는 기질)의 이념인가?

---

2006: 5). 그러나 왜 그런가에 대한 철학적 이론적 논의가 없다. 강정인은 보수주의를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이중성”이라고 말하고 있다(강정인, 2010: 51). 강정인은 사용하는 사례분석에서 그 같은 결론을 낸다. 그러나 왜 그 같은 이중성의 철학적 이론적 연구가 없다.

3) 제1항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4) 국회의원 유원일과 사회민주주의연대가 2011년 7월 17일 주체한 “대한민국헌법, 사회민주주의와 통하였는가?” 토론회의 자료집에서 좌파의 입장을 확인

5) 하이에크는 “왜 내가 보수주의자가 아닌가?”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논문에서 보수주의를 다루고 있다. 이 논문은 1960년 그의 『자유의 헌법』 맨 마지막 장, 후기에 수록되어 있다.

뷰캐넌은 그의 유명한 저서 하이에크의 문제제기를 이어받아서 “왜 나도 보수주의가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지는데(Buchanan, 2005: 4-8)<sup>6)</sup> 왜 그가 그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가? 자유주의는 보수주의와 어떻게 다른가? 공통점은 없는가?

이 글의 목적은 자유주의에 비추어서 서구에서 개발된 보수주의 이념의 내용을 규명하면서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해명하는 것이다.

이 글의 입장을 요약하면, 보수주의는 이념전쟁에서 사회민주주의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배격하지만 그러나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기본원칙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이념이라는 것이다. 보수주의는 시장이론과 공공선택론과 같은 사회이론이 없고, 그래서 원칙이 없는 실용주의적 기회주의적 이념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복지정책은 보수주의의 당연한 정치적 어젠다이지만, “제한된 정부(limited government)” 대신에 강한 정부(strong government)를 강조한 나머지 복지정책의 한계를 설정하지 못한 것이 보수주의의 치명적인 결함이라는 것이다.

제II장에서 보수주의가 등장한 서구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여 보수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자유주의가 최고의 가치라고 믿는 개인의 자유(또는 재산권)가 아니라 ‘기존 질서의 안정’이라는 것을 밝힐 것이다.

제III장에서는 인식론과 그리고 불평등론이라는 보수주의의 두 가지 철학적 기초를 자유주의와 비교·설명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보수주의가 강조하는 능력주의(meritocracy)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엘리트(권세가, 부자)의 겸손 대신에 자만심과 거드름을 부추긴다는 것을, 이런 태도를 잠재우기 위해서 보수주의가 노블레스 오블리지(nobles oblige) 또는 부자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도 자유사회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제IV장에서는 자유주의에 비추어 볼 때, 보수주의는 시장의 자생적인 힘에 대한 이론이 없기 때문에 그 힘을 불신하는 시장관(市場觀) 또는 사회관(社會觀)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것이다. 제V장에서는 ‘제한된 정부(limited government)’ 대신에 ‘강한 정부(strong government)’를 강조하는 보수주의의 국가관(國家觀)과 ‘원칙 없는’ 공공정책을 자유주의와 대비하여 설명할 것이다.

특히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정책은 보수주의의 당연한 정치적 어젠다라는 것을, 그러나 복지정책의 한계를 설정하지 못한 것이 보수주의의 치명적인 결

---

6) 뷰캐넌은 2003년 저서 『나도 보수주의자가 아니다』의 제 1장에서 보수주의를 다루고 있다.

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마지막 제VI장에서는 보수주의 이념의 허와 실을 요약할 것이다.

## II. 보수주의가 추구하는 가치: 기존 질서의 안정

보수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이 자유주의가 최고의 가치로서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재산권)인가? 시장경제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보수주의가 등장한 정치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긴다.

보수주의는 시대상황이 변할 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제도의 변화에 대응했다. 보수주의의 등장을 촉진한 시대적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하나는 18세기 영국의 정치사상가 버크(E. Burke: 1729 - 1797)를 중심으로 한 보수주의 이념의 등장배경이다. 둘째는 19세기 산업혁명의 시기이면서 자유주의 시대에 등장한 영국의 콜리지(J. C. Coolidge)와 프랑스의 보날드(L. G. Bonald)를 중심으로 한 보수주의의 등장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세기 사회주의 시대에 등장한 보수주의, 특히 커크(R. Kirk), 벨(D. Bell), 크리스톨(I. Kristol)등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등장한 보수주의이다.

이 역사적 등장배경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수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질서(안정)이다. 그 안정을 기존의 질서와 동일시하고 있다. 변화는 안정을 해친다는 것이다.

### 1. 프랑스 혁명과 보수주의

보수주의는 주지하다시피, 1789년의 프랑스 혁명 시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반발의 결과였다.<sup>7)</sup> 프랑스 혁명의 목표는 과거로부터 전수된 모든 관행과 관습, 전통, 법 규칙, 헌법 등, 인간들의 사회적 관계를 유도하는 제도들을 타파하여 사회를 새로이 구성하는 것이었다. 프랑스 혁명의 이념적 목표를 볼테르만큼 가장 잘 표현한 인물은 없을 것이다. 즉, “만일 당신이 훌륭한 법을 원한다면 지금의 법을 모두 불살라버리고 새것을 만들어라” 라고 말했던 것이다. “바뀌! 바뀌!”가 혁명의 화두였

---

7) 물론 그 전에도 종교 개혁 시기, 특히 영국의 신학자인 리처드 후커(R. Hooker)등의 글에서 그 태도를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보수주의가 그 관점을 영향력 있게 발언하기 시작한 것은 버크의 논설문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 이후라 할 수 있다.

다. 그 현대판은 1968년 유럽의 “문화혁명”, 중국의 문화혁명이다.

오랫동안 확립되어 온 모든 제도들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새로이 기획하여 합리적으로 사회제도를 재구성해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전통과 단절하고 새로이 사회를 재구성하는 것, 이것이 인류를 질곡에서 해방시키고 번영의 길로 안내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여겼다. 전래된 모든 것은 사장시켜야 할 대상이었다. 인간들끼리의 전통적인 위계적 질서와 권위관계도 없애고 전통적인 주인-대리인 역할, 전통적인 지배자 역할도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이 지정하는 것, 이것이 혁명의 목적이었다. 백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합리주의적 계획에 기초한 급진적인 사회개혁을 시도했다.<sup>8)</sup>

버크가 프랑스혁명에 대해 비판한 핵심은 그 혁명이 기존의 사회질서, 즉 전래된 전통, 관습과 관행, 도덕적 잣대, 법질서, 생활양식 등,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안내하는 현행 사회제도에 대한 위협이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보여주었던 것은 전래된 모든 사회제도를 구습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전부 개혁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파괴적인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한 사회를 엮어놓은 역사와 전통이 인간 사회의 안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었다.

우리가 주지해야 할 것은 버크가 지키고자 했던 중요한 가치는 사회질서의 안정이었다는 점이다. 혁명적 개혁은 이 같은 가치의 훼손이라고 여겼다. 재산권이나 자유라는 가치는 그 자체 가치로 여기지 않았다(Barry, 1987). 전통과 관행들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들이 자유와 재산권을 확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질서의 안정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각이 버크의 보수주의가 애덤 스미스와 흄 등의 스코틀랜드의 계몽주의 전통의 자유주의와 다른 점이라고 본다. 이들도 당시 보수주의자들과 동맹하여 프랑스 혁명을 반대했다.

그러나 반대한 이유는 기존의 사회질서의 위협보다 그 혁명이 초래할 개인의 자유와 자유거래에 대한 위협 때문이었다. 그들은 전통과 관행, 도덕규칙 그 자체를 중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장경제의 생성과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중시했던 것이다.

---

8) 당시의 슬로건은 전통적인 것, 과거의 것은 전부 버리고 새로이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민경국, 2004: 21).

## 2. 19세기 자유주의 시대와 보수주의

사회주의가 등장하기 전, 19세기 자유주의 시대는 영국을 비롯하여 유럽은 산업화의 물결로 점철되었다. 농업과 수공업 시대와는 전적으로 다른 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생산방식의 변화는 물론 시장이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갔다. 종전의 시대에 비하여 경제활동도 자유로웠고 세계화라는 개념이 실제 상황을 기술하기에 적합할 정도로 국제적인 무역의 자유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하여 몹시 두려워했다. 이 두려움을 표현하면서 등장한 것이 보수주의였다. 니스벳이 그의 1986년 유명한 『보수주의』에서 보여주고 있듯이(니스벳, 1986/2007: 103-104), 쿨리지(J. Coolidge), 사우디(R. Southy) 등, 영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상업의 발달과 산업화는 분열적이고 파괴적이고 사회를 해체한다는 이유로 시장경제의 발전을 비판했다.<sup>9)</sup>

산업혁명에 대한 보수주의적 비판은 프랑스도 예외가 아니었다. 보날드를 비롯한 보수주의자들은 상업, 산업, 도시화가 프랑스 혁명과 자연권적 교의만큼 파괴적이라고 주장했다. 도시생활이 개인들끼리의 사회적 유대를 파괴하고 혼인과 가족의 유대까지도 이완시켰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토지에 기반을 둔 농업사회의 회복을 강조한다.

사회주의가 등장하기 전 19세기 자유주의시대에 자유주의 개혁정책과 자본주의에 대한 보수주의의 적대감은 매우 컸다. 그래서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이끌었던 버나드 쇼(B. Shaw)가 자본주의에 대한 보수주의의 비판은 사회주의자들의 비판보다 더 격렬했다고 논평했던 것이다(니스벳, 위의 책 103).

어쨌든 보수주의의 등장요인은 상업의 발달로 인하여 기존의 사회질서에 대한 위협과 사회의 혼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존의 사회질서를 보호하려는 동기였다. 개인의 자유의 확대와 시장경제의 발달은 혼란을 야기하고 인간을 원자화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결속을 해체한다는 것이다.

19세기 보수주의 등장배경과 관련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수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시장경제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적으로 덜

---

9) 사우디(R. Southy)는 공장체제로 야기된 병폐와 인구의 도시집중을 철저히 비난했다. 신흥도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부도덕한 행위 그리고 도시집중으로 인한 각종 질병을 모두 산업화의 탓으로 돌렸다. 산업화와 상업이 종교와 도덕성에 대한 상식적인 원칙을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부도덕의 온상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디스레일리(R. Disraeli)는 영국사회가 제니방적기와 같은 기계로 뒤덮여 있음을 개탄하면서 기계가 실업의 원흉으로 여겼다(니스벳 1986/2007:103)

중시하고 그 대신에 사회질서의 안정을 더 중시한다는 점이다.

### 3. 20세기 사회주의 시대와 보수주의

미국에서 사회주의 시대의 전형은 1930대의 뉴딜과 이를 확대한 1960년 존슨 행정부의 ‘위대한 사회(the Great Society)’이다. 그 구체적 정책 프로그램은 “빈곤과의 전쟁” 계획, 강제적인 인종통합, 사회보험 등이었다. 이것은 전후 미국의 좌파적 이념의 최고 절정이다. 그 정책프로그램은 소수파와 빈곤층에 대한 법적 보호와 재정적 지원으로 구성된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이다. 이는 급진적인 사회개혁으로서 법적 정치적 그리고 철학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런 배경에서 러셀 커크, 다니엘 벨, 어빙 크리스탈 등을 중심으로, 사회주의를 비판하면서 보수주의가 등장했다. 영국에는 스크러튼이 활동했다. 흥미로운 것은 20세기 사회주의 시대에는 자유주의는 보수주의와 동맹하여 사회주의와 이념전쟁을 벌였다는 점이다. 이는 19세기 사회주의가 등장하기 전의 자유주의시대와 전적으로 다르다. 이 시기에는 자유주의는 보수주의의 적이였다.

반 사회주의 투쟁을 위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동맹과 관련하여 우리가 인식해야 할 점은 그들의 동맹 동기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자유주의가 사회주의를 반대했던 이유는 후자가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를 상대적으로 덜 걱정하는 보수주의가 사회주의 개혁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이 기존의 사회질서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 같은 개혁은 사회적 혼란을 부른다는 것이다.

### III. 보수주의의 철학적 바탕: 인식론과 불평등론

보수주의의 등장 배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수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기존의 질서의 안정이다. 그 이념은 변화는 안정을 해친다는 이유로 변화를 싫어하고 기존의 사회질서를 옹호한다. 따라서 보수주의는 “현재의 상황(status quo)”을 중시하는 기질적인 성향의 이념이다.(한스 헤르만 호페, 2001/2004: 305; 슈메이커, 2010: 337).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로 왜 보수주의가 안정이라는 가치를 중시하여 변화보다도 “현재상황(status quo)”에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이

다. 이에 대한 해답이 보수주의의 인식론적 입장이다.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변화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사회주의 시대의 평등분배에 대한 보수주의의 반대에서 볼 수 있듯이 왜 보수주의가 평등분배를 반대하는가이다. 이에 대한 해답이 불평등론이다. 인간은 자연적으로나 후천적으로 불평등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현재상황을 평등의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보수주의의 이 두 가지 철학적 기초를 설명할 것이다.

## 1. 인간이성의 한계와 보수주의

흥미로운 문제는 보수주의가 제도의 장래 변화보다는 제도의 현재 상황을 중시하는 이유이다. 이는 인간이성에 대한 비관주의 때문이다. 보수주의자는 제도의 변동이 자생적이든 인위적이든 그 변화가 장차 초래할 다양한 형태의 결과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한다. 보수주의가 낡은 것,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이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모르는 것을 수락하기보다는 현재가 나쁘다고 해도 이를 참고 견디는 것이 더 좋다는 태도”(Buchanan, 2003: 2)<sup>10)</sup>이다.

인간이성에 대한 비관주의에서 보수주의를 이끌어낸 중요한 인물은 버크이다. 그의 보수주의 인식론적 기초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Barry, 1987: 93).

- 보수주의는 지나치고 조잡한 합리주의를 부정한다.
- 보수주의는 개별이성 대신에 수 세대를 거쳐 형성된 집단적 경험과 지혜의 우월성을 신봉한다.
- 그 우월성을 구현한 것이 전통이나 관행, 관습 등, 전래된 사회제도로 기술될 수 있는 현재상황이고, 그래서 이를 중시한다.

요컨대 보수주의는 경험과 전통을 중시하는 이념이다. 그 이념은 이 같은 인식론적 입장에서 프랑스 혁명을 비판했다. 왜냐하면 이 혁명은 인간이성에 대한 무제한의 신뢰를 부여했던 데카르트, 홉스 등의 “구성주의적 합리주의”(Hayek, 1973: 14)

---

10) 하이에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보수주의의 근본적인 특징 중 하나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다.” (Hayek, 1960/1997: 318) 슈메이커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대보수주의는 전통적 보수주의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바탕을 해칠지도 모르는) 사회개혁의 예기치 못할 결과를 두려워한다.”(슈메이커, 2010: 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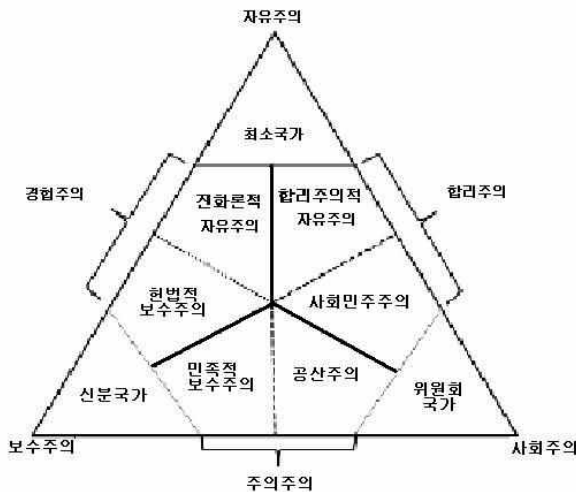


를 전제했기 때문이다<sup>11)</sup>.

보수주의는 자연권적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로크의 전통과 노직(R. Nozick) 그리고 라스바드(M. Rothbard)의 "권리이론적 자유주의"도 반대한다. 이들도 역시 합리주의를 전제한 이념이기 때문이다. 보수주의는 합리적, 철학적 논리적이며(호폐, 2001/2004: 329) 순수한 개인주의적 추상적 권리개념을 반대한다. 보수주의는 자연권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주의를 제일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저서 『보수주의의 의미』로 유명한 영국의 보수주의 정치철학자 스크러튼이 입증한다(Scruton, .1981)

1953년 저서 『보수주의 정신』으로 유명한 보수주의 정치철학자 커크(R. Kirk)도 매우 흥미롭다. 커크는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에 대한 해석에 로크의 자연권이론을 도입했던 하르츠 (Hartz, 1955)를 거부했던 인물이다. 로크의 자연권이론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커크는 미국의 정치적 전통에 버크의 보수주의를 도입했다.

<그림-1>: 이념 3각형



그리고 벤담(J. Bentham)을 중심으로 한 “급진적인 철학”으로서 공리주의도 보수주의와 거리가 멀다. 그 공리주의는 모든 제도와 정책을 사회적 행복 (사회적 후생함수)의 합리적인 테스트에 예속시키기 때문이다. 급진적 철학으로서 공리주의와 권리이론적 자유주의는 위에 있는 <그림-1>의 이념삼각형 에서 볼 수 있듯이<sup>12)</sup> <합

11) 하이에크는 “구성주의적 합리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그것은 개별이성은 모든 사회제도를 원하는 바대로 개혁하여 새로이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다.(Hayek, 1973: 14).

12) 이 그림은 민정국(2007: 49)에 있는 그림을 수정한 것이다.

리주의적 자유주의>에 해당된다.<sup>13)</sup>

이 같은 인식론에 근거하여 보수주의가 비판하는 것은 오히라가 말하듯이(O'Hara, 2011: 32), '사회공학적 사고(social engineering thinking)'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개혁이다. 20세기 사회주의 시대에 자유주의자 하이에크가 “과학주의(scientism)”라고 비판했던 것이 바로 이 같은 사회공학적 사고였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Hayek, 1979).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보수주의의 인식론적 비판주의는 일관되게 관철되지 못했다.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보수주의자들은 지적으로 현명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간이 지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엘리트주의를 전제하여 보수주의 철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경험과 전통을 중시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이다. 이는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흄 등이 확립했고 하이에크, 뷰캐넌 등이 계승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의 ‘진화론적 자유주의’이다(<그림-1> 참조).

개인의 자유와 제한된 정부, 그리고 법의 지배를 중시하는 고전적 자유주의도 개별 인간의 이성에 대한 불신과 집단적 경험과 지혜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는 일치한다. 버크(E. Burke)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프랑스 혁명을 비판했던 것도 이 같은 인식론적 관점을 공유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더구나 흥미롭게도 스코틀랜드의 자유주의자들이 성장한 제도에 대한 경외감을 증진하고, 특히 언어, 법, 도덕, 관습 등을 통해 자유사회를 이해하는데 버크, 터커(J. Tucker) 등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의 공헌도 매우 컸다(Hayek, 1960/1997 II: 318),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이 성장된 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 다윈(Ch. Darwin)이전에 이미 진화론적 접근법을 개발했던 것도 보수주의가 보여준 성장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이에크가 말하는 “다윈 이전의 다윈주의자들(darwinists before Darwin)”, 즉 문화적 진화이론가들(Hayek,

---

13) 흔히 이념을 설명할 때 수평선을 긋고 보수주의나 자유주의를 우측, 좌측에 사회주의를 정한다. 그리고 그 중간에 중도우파 또는 중도 좌파 식으로 설명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왜냐 하면 동일 선상에 사회주의 또는 사민주의를 자유주의에 놓는 것은 사회주의나 자유주의는 등가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둘은 등가적일 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나쁜 이념이고 또 실패한 이념이기 때문이다(민경국, 2011a: 32).

1973: 22-23)을 탄생시킨 것이 영국의 전통적인 보수주의였다.<sup>14)</sup>

그러나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보수주의가 자유주의와 동일한 합리주의를 전제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보수주의는 반(反) 합리주의를 전제한다. 이에 반하여 고전적 자유주의는 이성을 조심스럽게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판적 합리주의(critical rationalism)’를 전제한다.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사회를 계획할 수는 없지만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자유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정도로 인간은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보수주의는 특정한 제도를 역사적으로 전수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존중한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에게 존재하는 것을 보유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자유로운 진화와 변화를 방해하는 법적 제도나 정책이 있다면 이들을 제거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입장이다.

자유주의자들도 지식의 한계와 구조적 무지를 인정한다는 점에 대해서 그리고 변화의 결과에 대해 무지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보수주의와 일치하지만 이 후자는 기존의 제도들에 대해 찬양한다는 의미에서 과거 회고적(backward looking doctrine)이다. 이는 현재 있는 것(being)을 지키는(conserve) 이념이다. 아직 없는 것을 지키는 것은 언어의 남용이다.

자유주의는 기존의 사회제도를 보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동하도록 허용할 자세가 되어 있다. 만약 변화를 방해하는 정책이나 법적 요인들이 있다면 이를 제거한다. 자유주의는 변화에 대하여 매우 낙관적이라는 의미에서 미래 전망적(forward looking doctrine)이다(하이에크, 1960/1997: 317, 336).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보수주의는 이 같은 입장을 변화와 진화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변화를 몰고 오는 자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두려움은 시장경제에 대한 보수주의의 비판적 태도에서 드러난다.

---

14) 진화이론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지성사의 오류를 수정해야 할 것이 있다. 즉, 다윈의 진화이론이 먼저 생겨났고 사회과학이 이를 적용해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과 도덕 언어 등과 같은 제도들의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이 개발한 이론을 생물학에 적용한 것이 다윈의 진화이론이다(민경국, 2009). 흔히 일각에서는 시장경제, 법 화폐 등의 진화를 설명하는데 다윈을 불러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럴 필요도 없고 또한 그래서도 안 된다. 필자가 다른 장소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생물학적 진화이론을 인간사회의 제도의 진화에 적용할 경우 이는 인간사회를 오도할 심각한 위험이 뒤따른다.(민경국, 위의 논문). 물리학을 경제학에 도입하여 생겨난 문제를 연상할 필요가 있다.

## 2. 인간의 불평등과 보수주의

보수주의의 두 번째 전제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에 대한 해석과 이해이다. 보수주의는 인간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는 타고날 때부터 우열(優劣)이 있다고 주장한다(Agre, 2004).<sup>15)</sup> 그래서 사회는 사회적 신분에 있거나 경제적 지위에 있어서 위계질서가 핵심이고 인간들 사이에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보수주의는 이 같은 사회적 위계질서를 지지하고 보존하려고 한다. 기존의 불평등을 평등이나 그 밖의 다른 상황으로 전환하는 개혁을 전적으로 반대한다. 그 같은 전환은 기존의 사회질서에 대한 위협이요 그 전환의 결과는 혼란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불평등에 기인한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것이 보수주의의 특징이다.(Barry, 1987: 90; 슈메이커, 2010: 324). 서열상으로 우월한 사람들이 공공의 문제에서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명된 지도자들”(슈메이커, 2010: 325)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도 말한다. 전형적인 엘리트주의이다.

보수주의의 이 같은 엘리트주의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구현되었다. 첫째로 일종의 귀족주의(aristocracy)이다. 보수주의는 탁월하고 우월한 자들이 전통적으로 전수받은 도덕적 기준 및 가치,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들은 그들이 독점해야 하고 특혜적 조치를 통해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생각을 반영한 것이 전통적 보수주의가 지향했던 귀족주의이다. 탁월하고 우월한 자들은 지배적 위치에 있는 귀족가문이다.

그러나 보수주의는 점차 변동하여<sup>16)</sup> 오늘날에는 귀족주의 대신에 능력주의(meritocracy)의 이상(理想)을 수용했다.<sup>17)</sup> 이는 계급이나 가문출신과 성별, 인종에 관계없이 능력이나 도덕적 품성이 높은 공로(merit)가 가장 큰 사람이 사회의 서열 구조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래서 능력주의는 두 번째 종류의 엘리트주의이다.

---

15) 뷰캐넌이 2005년 자신의 저서 『나도 보수주의자가 아니다』에서 (Buchanan, 2005: 4) 보여주는 바와 같이 플라톤은 어떤 사람은 노예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 태어난다고 말함으로써 자연적 위계를 주장한다. 이것이 보수주의의 인간관을 구성한다.

16) 왜 귀족주의에서 능력주의로 변동했는가의 이유는 다양한 사회계급의 출신도 여러 재능과 덕성을 지닐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17) 어빙 크리스톨 또는 다니엘 벨 등의 보수주의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능력주의는 경제에서 승리하는 자는 지적 능력은 물론이요 성실·근면·절약·신용 등의 덕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민경국, 2007: 203-204, 215). 이것이 오늘날 보수주의의 분배정의이다. 이 같은 시각에서 보수주의는 사회정의와 같은 평등분배를 반대한다.

보수주의는 자유주의와 어떻게 다른가? 자유주의자들도 인간본성의 끝없는 다양성, 즉 개인능력과 잠재력의 폭 넓은 차이가 인류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Hayek, 1960/1996 I: 151).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인간들을 우열로 분류하지 않는다. 그 같은 분류를 위한 객관적인 도덕적 잣대나 분류기준을 찾아낼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 잣대나 기준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보수주의자들과는 달리, 자유주의자들은 그런 능력을 가진 엘리트를 상정하는 것조차 반대한다(Buchanan, 2005: 7-8).

귀족주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수주의는 서열상 우월한 사람들의 가치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에게 특권이나 특혜를 부여한다. 그러나 자유사회에서는 보호받을 특권이란 존재할 수 없다. 특권부여는 법의 지배원칙의 치명적인 위반이다. 설사 엘리트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법적 조건하에서 자유경쟁을 통하여 자신들의 지위를 스스로 지키도록 내버려둬야 한다는 것이 자유주의 원칙이다.

### 3. 능력주의와 보수주의

보수주의의 분배원칙은 능력이나 공로의 차이에 따라 재산이나 지위의 차이가 나야 한다는 능력주의 원칙이다. 능력주의는 얼마나 노력했는가, 성실했는가와 같이 행동의 도덕적 성격에 따라 개인들에게 소득을 분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공로원칙’이라고 부르는 보수주의의 분배원칙은 개인들의 소득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타인들의 도덕적 판단에 좌우되게 만드는 원칙이다.

그러나 그 분배원칙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민경국, 2007: 206-209). 인식론적 이유에서 자유주의는 그 같은 분배원칙을 부정한다. 뷰캐넌이 자신의 논문 “왜 나도 보수주의가 아닌가?”에서 또렷하게 보여주는 것처럼(Buchanan, 2005: 7), 인간들의 우열을 분류할 잣대를 알 수 없는 것과 똑같이 공로를 측정할 도덕적 잣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더구나 개인의 지위와 소득을 정하는 그 같은 분배원칙은 투입 지향적 원칙이다. 어떤 일을 해내는데 따르는 투입(노동, 능력, 재주, 성실성 등)이 개인의 소득수준이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투입 지향적 분배원칙이다.

그러나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이는 매우 애매한 분배적 결론에 도달한다. 개인의 행동결과로서 그 성과가 타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해도 그 성과를 위해 성실하고 근면했다면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 성과가 나쁘다고 해도 노력과 성실성이 가상하다면 상응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애매한 결론에 달한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점은 능력주의의 분배정의는 국가의 규제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노력이나 능력 또는 공로와 관련이 없는 소득형성에 국가가 개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른바 ‘불로소득’의 문제가 그 한 예이다.<sup>18)</sup> 능력주의를 강조하면 재산상속의 정당성이 의문시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을 반대한다면 이는 보수주의가 중시하는 가족의 가치와도 충돌한다.

자유주의에서 경제적 성공과 지위는 개인의 행동의 도덕적 성격이 아니라 개인의 행동의 성과나 능력이 시장사람들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에 달려있다. 시장경제의 소득결정은 투입이 아니라 결과 지향적이다.

물론 경제적 성공을 위해, 수요자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공급하기 위해서 능력과 노력, 성실성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그 같은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운이 따라야 한다. 못난 사람도 운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 물론, 운에 의한 경제적 성공도 시장의 수요자들에게 유익한 가치를 제공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경제적 상황에 의해서도 개인의 경제적 성공이 좌우된다. 성공을 위해서는 시장 상황도 우호적이어야 한다.

에베레스트 등정의 성공이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등반가가 회피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운이나 상황에도 좌우된다. 마찬가지로 시장경제에서 개인의 소득 결정은 노력, 능력 성실성 이외에도 운이나 상황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그래서 자유사회에서는 부자나 권세가는 우쭐대거나 거드름 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우연이나 시장상황에 의해 부를 축적했기 때문이다. 자유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겸손해야 할 이유다

성공과 실패가 능력이나 도덕적 공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실패한 자는 무능력자로 또는 성실하지 못한 게으름뱅이로 낙인찍기 때문이다. 실패를 운 때문이라거나 재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등

---

18) 외적인 이유로 부동산 가치가 급상승의 결과로 얻은 재산증대에 정부가 개입해야 할 것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실패해도 변명의 여지가 있는 것이 자유사회이다. 그리고 타인들이 실패한 사람들에게 ‘너는 능력은 있는데 운이 나빴어!’ 라든가 ‘열심히 했지만 너에게 시장상황이 우호적이지 못했어!’ 라는 말로 위로할 여지가 있다(민경국, 2007: 211-212).

그렇다고 소득결정이 완전히 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는 아니다. 허무주의가 팽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사회는 엄격한 능력주의 사회도 아니고 완전히 운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도 아니다. 그 중간에 위치한 사회가 자유사회이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때로는 선하고 때로는 악할 수 있으며 때로는 재능이 있고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 등,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사회이다.

자유주의에서 정의는 개인의 소득 결정과 관련된 것도 아니다. 인간행동과 결부되어 있다. 그 정의 개념에서는 정의로운 행동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무엇이 정의롭지 않은 행동이냐를 묻는다. 예를 들면 폭력, 사기, 기만, 횡령 등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행동은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다. 정의의 규칙은 이 같은 행동을 막는데 초점을 맞춘 행동규칙이다. 절차적 규칙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이 같은 규칙을 지키면서 열려진 기회를 포착하여 재산을 모으고 지위를 차지한다.

공로원칙을 준거로 한다면 자본주의의 분배에 깊이 개입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도덕적 행동과는 관계없이 유리한 환경이나 운 때문에 재산이 증가한 경우, 이런 요인에 의한 재산획득은 제한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4. 보수주의와 노블리스 오블리지

결론부터 말하면 보수주의 사회는 귀족주의든 능력주의든, 엘리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그 같은 사회는 엘리트의 자만심과 거드름을 부추기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엘리트의 우쭐됨을 잠재우기 위해서 생겨난 개념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이다. 현대적 표현이 부자의 사회적 책임이다. 아니면 우월한 자, 지배자, 주인 등의 온정주의의 표현이 ‘노블리스 오블리지’(nobles oblige)이다

보수주의의 특징은 노블리스 오블리지이다. 이는 큰 권리와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더 큰 의무와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슈메이커, 2010: 655). 이는 귀족사회의 유물이지만 오늘날에도 지배계층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많다. 이 전통에 따라서 능력주의를 강조하는 현대 보수주의자도 이를 강조하고 있다. 부자의 사회적 책임론이 그것이다.

오늘날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요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최소한 암묵적으로 특권과 같은 것의 존재를, 그리고 위계질서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자유사회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어떤 특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노블리스’는 존재할 수 없다.

더구나 개인들의 재산과 지위는 제주와 능력, 위험선택, 운과 시장상황 등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나 그 자손이 항상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그래서 사회의 위계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다. 부자가 가난해지고 가난 한 자가 부자가 되는 세상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지는 현대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부자의 ‘사회적 책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사회에서는 부의 축적은 특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장의 수요자들에게 가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한 대가이다. 이미 상응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의무나 책임이 없다. 그래서 자유사회는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요구할 조건이 없다. 보호받을 특권도 없고 분배적 위계도 유동적이고 부의 축적은 이에 해당되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는 부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또는 노블리스 오블리지 요구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자유사회에서는 부자나 권세가는 우쭐대거나 거드름 필 하등의 근거가 없다. 개인의 성공 가운데 상당부분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우연이나 시장상황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자유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겸손해야 할 이유다.

#### IV. 보수주의 이념의 사회질서관

보수주의의 사회관과 관련하여 세 가지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로 흥미로운 것은 사회에 관한 전통적 보수주의의 유기체적 관점이다. 정말로 인간사회를 유기체의 생물학적 구조에 비유할 수 있는가? 보수주의가 어떤 의도로 인간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하려고 했는가?

둘째로 자유와 질서에 대한 보수주의의 입장이다. 이 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세 번째는 보수주의가 시장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 1. 사회유기체론과 보수주의

유기체의 생물학적 구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질서이다. 이는 임의로 인간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스스로 생성되는 특징을 가진 자연적 진화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 같은 관점보다도 보수주의가 사회유기체론을 이용한 목적은 다른데 있다. 위계질서의 권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했다.(슈메이커, 2010: 324; Barry, 1987: 90).<sup>19)</sup> 다시 말하면 유기체론은 특정그룹의 특권, 인간들의 차등, 명령과 복종 관계, 특정개인들의 기득권, 그들의 특수 지위나 역할의 유지를 옹호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다(Hayek, 1973: 53). 인간사회를 유기체와 비유하는 것이 타당한가?

흥미로운 것은 마치 유기체의 각 기관이 위계적으로 고정된 위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회의 구성원들도 그 기능에 따라서 고정된 위치가 할당되어 있다고 여기고 있다. 간이나 위 또는 두뇌와 같이 유기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특수 기관(器官)들의 위치를 바꾸거나 역할을 억제하면 유기체가 치명적인 것처럼 위계적인 기존의 사회질서를 바꿀 경우 사회의 안정이 위태롭다는 것이다.

유기체는 그것이 일단 성숙하면 유기체를 구성하는 개별요소들이 차지한 고정된 위치를 일거에 전부 보유한다. 유기체는 원칙적으로 수가 고정된 요소들로 구성된 일정불변적인 시스템이다. 그리고 유기체적인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유기체 그 자체의 목적에 예속되어 있다. 그들은 그래서 유기체의 부속품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유기체 전체의 생존을 위해 각 기관에 역할이 배정되어 있다. 각 기관은 자율성도 없다. 유기체는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조직과 같은 의미이다.<sup>20)</sup>

자유주의가 보는 질서관은 무엇인가? 이는 유기체로 보는 질서관과 어떻게 다른가? 자유주의는 사회질서를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로 이해한다. 이 질서의 특징은 주지하다시피 보호되는 기득권도 없고 특권 계급도 없다. 그리고 위계질서가 아니라 수평적 질서이다. 권위주의적 질서도 아니다.

흥미로운 것은 자생적 질서를 구성하는 요소들(기업, 가게, 개인 민간집단)의 경제

19) 슈메이커는 사회에 대한 보수주의의 시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슈메이커, 2010: 324). “유기체적 사회는 서열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의 몸에 중요한 부위와(모발과 편도선처럼) 덜 중요한 부위가 있듯이 정치체 내에서도 더 중요한 인간과 집단이 있는가하면 덜 중요한 인간과 집단이 있을 수 있다.”자연권이론적 자유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는 호페도 확인하고 있듯이(호페, 2001/2004: 307), 보수주의는 자연적 위계를 중시한다.

20) 보수주의가 권위주의적 질서를 전제하고 있는 이유도 그 같은 질서관 때문이다. 보수주의는 권위주의를 전제한다는 강정인 교수의 주장은 옳다(강정인, 2010: 51)

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사회적 기능도 주어지거나 고정된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의 위치나 기능이 자생적으로 신속히 변동한다. 구성요소들이 공동으로 달성할 공동의 목적도 없다. 사회의 자생적 질서는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변동한다. 내적인 구조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마지막으로 명확히 해야 할 점이 있다. 즉, 사회를 유기체로 보는 보수주의 시각은 유기체는 외부의 간섭이 없이도 내적인 질서가 유지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개념이 아니라, 오로지 사회의 자연적 위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같은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질서는 이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자생적 질서에 속한다.

## 2. 보수주의와 인위적 질서

커크, 스크러튼, 크리스톨 등, 보수주의자들은 어떤 권위가 없이는 사회의 질서와 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자생적 질서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위적 질서를 옹호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해 사회질서가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자생적인 힘을 믿는데 반하여 보수주의는 외적인 어떤 현명하고 선한 권위가 없이는 질서의 생성과 유지가 가능하지 못하다고 믿는다.

시장경제는 자생적인 힘을 통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유주의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이에 반하여 사회질서와 시장경제는 지혜로운 사람의 의식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믿는 것이 보수주의 핵심부분이다. 보수주의자들이 그 같은 믿음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질서이론, 구체적으로 말해서 수많은 인간들의 행동들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힘을 설명하는 이론 즉, 경제적 메커니즘에 관한 이론이 없기 때문이다. 보수주의 전통의 핵심은 추상적인 이론에 대한 불신이다(Hayek, 1960/1997: 325; 호페, 2001/2004: 316)<sup>21)</sup>. 경험이 입증하는 것 이외에는 논증의 힘도, 그리고 이론적 상상도 믿지 않는 것이 보수주의의 전통이다. 그들이 믿는 것은 개명된 지도자들이다(Hayek, 1960/1998 II: 319; 슈메이커, 2008/2010: 325).

보수주의는 경제적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을 불신하기 때문에 정책의 원칙도 불신한다. 자생적인 적응을 야기하는 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를 불신하기 때

21) 이론을 불신하는 점에서 보수주의는 역사학과 동일하다(호페, 2008/2010: 316).

문에 원칙의 정치에 대한 헌신도 없다. 상황변화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기회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간섭을 허용한다.

원칙의 정치는 자생적 질서를 전제로 한다. 보수주의의 취약점은 이미 버크에서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그에게는 이론이 없었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를 비롯한 자유주의자는 “보이지 않는 손”의 이론을 개발했다.

보수주의는 사회질서의 자생적인 힘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서 정책의 원칙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것, 이것이 자유주의와 전적으로 다르다.

‘줄푸세’는 원칙의 정치이다. 이는 정부지출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의 지배를 세우면 자생적으로 질서가 형성된다는 확신은 이론적 뒷받침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747을 실용주의적이고 원칙의 정치를 전제한 것이 아니다. 이론을 무시하는 것은 보수주의의 치명적인 결함이 아닐 수 없다. 이념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이론은 이념전쟁을 위한 중요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 3. 자본주의에 대한 보수주의 입장

자유주의가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를 비판하는 것과 똑 같이 커크, 스크러튼 등, 보수주의자들도 그 같은 좌익의 정책을 비판한다. 그러나 그들은 시장경제의 존재를 매우 긍정적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하지 않다. 커크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대중이 뿌리를 상실했다고 말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벨과 크리스톨은 보수주의 이념을 성찰하면서 사회주의를 부정하고 경제적 자유주의를 제한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sup>22)</sup>

자본주의에 대한 그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성공했지만 이 체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치의 위기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와 자유사회는 내적으로 자기 파괴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지나친 자유와 개인주의는 내적 결속을 파괴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원자화를 야기한다고도 한다. 자유사회의 위협은 사회주의 복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유사회 그 자체에서 온다고 한다.<sup>23)</sup> 이는 분명히 시장경제의 자생적 질서를 부정하는 주장이

22) 벨은 『자본주의의 문화적 충돌』에서 그리고 크리스톨은 『자본주의의 두 얼굴』이 같은 주장을 한다.

23) 자유주의에 대한 이 같은 비판은 1930년대 자유주의가 몰락했을 때 그 원인을 말했던 독일의 경제학자 뤼스토브(W. Rüstow)의 비판과 흡사하다. 물질적인 풍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그래서 공동체적 결속을 필요로 한다. 자유주의는 이 같은 욕구를 무시한다는 것

다.

그러나 미제스, 하이에크, 프리드만 등, 자유주의자들이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듯이 20세기 위기는 가치의 위기가 아니라 반 시장적인 국가 개입에 의해 야기된 경제위기이다. 정부개입은 지대추구를 야기하고 이것은 결국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 이 같은 갈등은 공동체 정신, 배려의 도덕, 책임감 등, 자유사회의 도덕적 발전도 파괴한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시장경제는 자유를 보장하는 법 규칙(정의의 규칙)이 엄격하게 확립되어 있으면, 배려의 도덕, 책임감, 성실성, 정직성 등과 같은 소중한 도덕적 가치도 시장내적으로 형성되고 유지된다는 점이다(민경국, 2010). 교환시스템이 스스로 적절한 개인적 윤리를 창출하고 확산시킨다. 이 같은 확산은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한다. 그래서 시장경제와 도덕규칙은 서로 공진화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은 시장의 자유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반 시장적 소설, 반 시장적 영화나 TV 방송, 반 시장적인 것을 옹호하는 각종 출판 등, 이들이 시장자유를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하여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정부가 반시장적 출판물을 금지하는 보수주의적 태도는 옳지 않다. 관용이라는 자유주의의 도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다. 그리고 그 같은 반 시장적 산업을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시민들의 반 시장적 태도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이는 이념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자유주의자들의 중요한 과제에 속한다.

흥미로운 것은 2008년의 금융위기의 원인이다. 보수주의들은 탐욕적인 자본가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시장은 이런 탐욕을 조장할 뿐 이를 조절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사회 공학적 사고를 전제한 금융공학이 그 같은 탐욕을 실행에 옮기다가 당한 것이 금융위기라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이 탐욕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글래스 스티걸 법(Glass Steagall Act)의 철폐에서 보는 것처럼 신자유주의의 탈규제를 진행해 왔다는 것이다.(O'Hara, 2011: 245). 사회주의자들의 비판도 이와 흡사하지만 그들의 비판은 보다 포괄적이고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

이다. 산업노동자는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음에도 농부보다 덜 행복하다는 것이다. 사회의 원자화와 그리고 이익집단들의 경쟁 등, 이들이 통합을 방해하는 요인들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처해있는 거대한 위기는 경제위기라기보다는 통합의 위기라는 것이다(민경국, 2011)

그러나 오스트리아학파가 보여주고 있듯이, 자유주의 진영의 경제학에서는 금융위기의 원인은 시장의 내적인 오류 때문이 아니라 외적인 요인 즉, 방만한 통화정책(그리고 주택정책)에서 찾고 있다.

## V. 보수주의의 국가관과 국가의 과제

보수주의는 어떤 내용의 국가관을 전제하는가? 그리고 보수주의에서 국가의 과제는 무엇이고 공공정책을 위한 어떤 원칙이 있는가?

### 1. 보수주의의 국가관: 강한 국가

보수주의 생각 가운데 가장 복잡한 문제가 국가에 관한 문제이다. 애초부터 보수주의는 국가권력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다. 인간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이 커지면 그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국가의 권력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사회주의를 비판한 것도 그 같은 관점 때문이었다. 다른 한편, 보수주의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협조가 불가능하고 한다. 그대로 놔두면 그 결과는 아나키라는 것이다.<sup>24)</sup> 자유와 질서는 갈등관계가 있다는 것이 보수주의 입장이다. 그래서 자유 대신에 질서를 선택하고 있다. 이는 홉스의 관점과 유사하다. 그러나 로크는 질서 대신에 자유를 선택했다. 홉스든, 로크든 보수주의든 자유와 질서는 조화로운 관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를 간파한 인물이 애덤 스미스, 흄, 그리고 하이에크 등의 자유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은 자생적 질서와 이에 속하는 시장경제에서 자유와 질서의 조화를 보았던 것이다.

어쨌든 보수주의는 국가 없이는 안정적인 사회질서가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그래서 강한국가를 요구한다. 국가 없이는 도덕도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그래서 보수주의는 국가에 대한 존중심이 비교적 크다.

보수주의에게 국가는 법의 원천이자 도덕의 원천이다. 국가가 없이는 개체성도 의미가 없다. 국가는 법의 원천이라는 것은 법은 국가와 독립적인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야말로 반 자유주의적 법 개념이고 법실증주의의 전형이다. 법

---

24) 사회를 유기체로 보는 보수주의 시각은 유기체는 외부의 간섭이 없이도 내적인 질서가 유지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개념이 아니라 오로지 사회의 자연적 위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같은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과 국가의 관계와 법실증주의에 관한 보수주의적 입장은 국가의 의지와 능력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다.

보수주의는 전통적으로 국가권력을 두려워함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같은 신뢰를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명하고 선한 의지를 가진 정부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수주의에 의하면 정부가 현명하고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수중에 있으면 그들의 권력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보수주의의 성공은 그 같은 선한 인간의 발견에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의 악행을 최소로 줄이게 할 수 있는 체제이다. 이것이 작은 정부 큰 시장이다. 강한 정부가 아니라 “제한된 정부”가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정부형태이다.

## 2.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주의

보수주의가 선하고 유능한 정부의 존재를 믿는 것은 헤겔적 국가관의 유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같은 믿음은 정부의 비대화를 말하는 레비아단의 문제와 그리고 정치가의 기회주의를 의미하는 주인-대리인 문제에 접근하기가 곤란하다.

그 같은 믿음은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 사회이론에 속하는 “공공선택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온정주의적 국가관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공공선택론이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권력은 제한되어야 하고 이를 제한하는 효과적인 장치가 헌법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것도 공공선택론이다.

자유주의자들은 공공선택론을 이용하여 왜 민주주의에서 정부지출과 규제가 증대하는가도 설명한다. 더구나 민주적 정치과정에서 그 같은 증대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제한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충돌한다는 것도 자유주의자들의 중요한 인식이다. 자유주의가 전제하는 민주주의는 무제한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제한된 민주주의(limited democracy)”이다 (Hayek, 1978).

‘자유민주주의’는 서로 상이한 의미를 가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합성한 개념이다. 그 내용이 충돌하지 않으려면 민주주의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 측은 자유주의자들이다. 보수주의는 자유민주주의 개념의 내적인 충돌을 알지 못한다. 보수주의는 누가 권력을 행사하는가에 관심이 있을 뿐, 국가권력은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관심 밖에 있기 때문이다.<sup>25)</sup> 따라서 보수주의는 자유민주주의 개념의 내적 충돌을 막을 장치가 없다.

흥미로운 것은 보수주의는 안정된 사회를 위해서는 자발적 결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가족, 종교단체, 지역 공동체, 각종 직업 단체,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선단체들. 이 같은 단체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에 대하여 자유주의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자발적 조직은 자유주의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개인의 자유의 결과이고 또 원자적 인간을 극복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조직의 활동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그들의 활동은 자유로이 허용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보수주의는 그 같은 집단들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입법특혜나 정부특혜를 추구할 위험성을 간과하고 오히려 정부는 그 같은 조직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공선택론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나온 주장이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특정그룹에 대한 정부의 특혜는 법의 지배원칙에 대한 위반이라는 의미에서 엄격하게 금지한다.<sup>26)</sup>

### 3. 보수주의와 국가의 과제

보수주의가 상정하는 국가는 애덤 스미스, 미제스 하이에크 등, 자유주의자들이 상정했던 과제보다는 큰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수시로 그 과제가 증가될 수 있다.

중요한 몇 가지 예를 들어 그 과제를 설명하면 보수주의에서 국가의 과제는 원칙보다도 매우 실용주의적이고 때로는 기회주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경제안정:** 경제안정에 대한 보수주의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O'Hara, 2011: 174). 즉, 금융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은 변동이 매우 격심하기 때문에 이를 안정화하는 것이 국가의 과제이다. 시장에 맡기는 것이 최적 해결은 될 수 없다. 은행의 도산, 대기업의 도산 등은 구제금융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sup>27)</sup> 이 같은 정책을 통해

---

25) 근본적으로, 보수주의는 자유주의보다 개인의 자유를 덜 존중한다. 그래서 보수주의에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장치에 대한 논의도 빠져있다.

26) 전통산업에 속하는 농업,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보수주의의 핵심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이 자유주의와 보호주의를 분할시켰던 중요한 요인이었다. 더구나 복지단체들에게 복지서비스 공급을 위해서 그들을 강력히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27) 도덕적 해이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를 두려워해서 도산을 방관하는 것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기되는 도덕적 해이나 제3자의 조세부담, 경제의 왜곡 등보다도 실업이나 주민들의 저축 손실과 같은 경제 불안을 더 중시한다.

보수주의는 금본위제를 옹호했다. 금본위제의 이탈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진입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케인스주의가 지배했을 때,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이를 환영했다. 이 같은 보수주의 입장은 기회주의의 전형적인 예다.

**2)산업정책:**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의 간섭을 강조한다.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의 지원 정책,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등과 같은 산업정책을 중시한다. 그러나 보수주의는 국가의 지원정책은 차별을 통해서 자유경쟁을 왜곡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수주의는 지원대상의 산업이나 기업은 시장이 선별하고 선별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정부의 과제로 여기고 있다. (O'Hara, 2011: 174). 산업정책의 명분으로 “잘하는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주의는 이 같은 지원이 경쟁 질서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3)보호무역:** 자유무역에 대한 보수주의 입장은 전통적으로 불분명하다. 버크와 같이 자유무역을 강조한 보수주의도 있었고 19세기에는 특히 농업의 보호주의를 강조하는 보수주의도 있었다. 자유무역은 단순히 고전적 자유주의의 도그마라고 비판하면서 이는 사회의 진정한 이익을 침해할 뿐이라고 믿는 보수주의자들도 있었다. 오늘날에도 보수주의는 전면적인 자유무역을 주장하지 않는다. 문화적으로 중요한 부문은 보호받아야 하고 환경이나 윤리적 고려에서 상품의 수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도 한다.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자본자유화도 반대하면서 금융부분의 엄격한 국가의 감시 감독을 강조한다.

**4)사적 도덕의 문제:** 보수주의자들은 매우 도덕적이다. 마약, 음주, 동성애, 도박, 포르노그래피, 매춘 등은 부도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금지할 것을 주장한다. 그래서 그들은 개인적 도덕의 세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옹호한다. 이는 보수주의자가 자신의 가치를 타인들에게 부과한다는 의미에서 온정주의이다 도덕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이런 행동은 개인들이 스스로 절제하도록 맡긴다. 그 같은 행



동은 타인들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보수주의는 반 합리주의 때문에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 이론적 원칙이 없다.<sup>28)</sup> 그래서 보수주의는 공공정책에서 실용주의적이고 때로는 기회주의적이라는 하이에크의 주장은 정곡을 찌르는 말이다.<sup>29)</sup>

**5)복지정책:**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복지정책은 보수주의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복지는 보수주의의 산물이다. 보수주의는 세 가지 관점에서 복지정책을 선호한다.

첫째로 복지정책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복지정책을 지지한다. 국가로부터 받을 복지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복지전통을 통해서 형성되었다고 여긴다. 보수주의가 무상교육을 반대하지 않는 이유도 이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었기 때문이다.

복지와 무상의무 교육을 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하거나 개혁하는 것은 전통과 관습에 의해 정당화된 기대를 수포로 만들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은 기존의 복지정책을 수용하는 태도이다.

둘째로 보수주의는 가부장적 온정부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보수주의자는 위계의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능력이 적다고 생각한다. 보수주의 가치에서 개인의 자유와 그리고 그 결과로서 개인의 책임의 비중이 자유주의만큼 크지 않다.(Buchanan, 2005: 8).

이 같은 온정주의와 직결되는 것이 복지정책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지, 사회적 책임도 개인적 도덕뿐만 아니라 사회적 윤리의 차원에 해당되는 복지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개념이다.

셋째로 복지요구가 사회적 분위기를 압도하여 이를 거부할 경우, 거부 결과가 두려워서 보수주의는 복지요구에 순응한다. 보수주의의 이 같은 순응은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그 순응은 일종의 기회주의적 타협이다.<sup>30)</sup>

28) 보수주의 원조였던 버크는 불완전한 인간이 지나친 권력을 가지면 큰 피해를 만든다. 국가에게 적절한 과제만을 맡긴다. 무엇이 적절한가를 말해주지 않는다.

29) 회사 간부의 자녀에 대한 회사직원 특별채용도 일자리 세습에 해당되는, 그러나 공권력을 통해 막을 수 없는 일종의 보수주의 채용방식이다.

30) 흥미로운 것은 잘 알려진 올라스키의 ‘온정적 보수주의(compassionate conservatism)’이다.(Olasky, 2000). 정부의 직접적인 복지정책 대신에 상류층의 기부금을 통한 민간의 복지재단이나 교회단체에 의한 복지서비스 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지의 실현이다. 그리고 정부는 민간복지단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담당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보수주의는 그 같은 집단들이 정치에

우리가 확인 할 수 있는 온정주의 국가관 그리고 정치적 타협 등,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볼 때 복지정책은 보수주의의 당연한 정치적 어젠다라는 점이다. 보수주의 정치가로 알려진 독일의 비스마르크(Bismark)재상(Nisbet, 1986/2007: 97)과 영국의 처칠(Churchill)<sup>31)</sup> 수상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과 같은 복지제도의 뿌리는 보수주의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복지정책이 넘어서서는 안 될 경계선을 정하지 못한 것이 보수주의의 치명적인 결함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보수주의가 말하는 따뜻한 복지, 자본주의 4.0 또는 온정적 보수주의(compassionate conservatism) 등도 그 경계선이 없다. 그 이유는 선하고 현명한 온정주의 국가를 전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수주의는 강한 정부를 요구할 뿐 제한된 정부를 생각하지 못했다. 공공선택론의 인식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47년 <몽 펠린 소사이어티 창립학술의>의 이래 자유주의에서는 복지정책은 시장법칙을 최소로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민경국, 2011)<sup>32)</sup> 보수주의에는 그 같은 원칙이 없다. 그래서 보수주의는 복지를 이해그룹의 정치와 정당의 산물로 만들 위험성이 있다.

**6)특권허용:** 특수한 자에 대한 군면제 또는 특별 국방의무(국가대표운동선수 군면제, 대학원졸업자에 대한 군대 특별대우), 장관자녀 공무원 특별채용, 이들은 모두 특권이다. 그 이념적 원천이 귀족주의 또는 이른바 ‘능력주의’를 전제하는 보수주의라고 볼 수 있다. 자유주의가 극력 반대하는 이 같은 특혜와 특권이 있는 곳에는 보수주의가 있다.

---

영향력을 행사하여 입법특혜나 정부특혜를 추구할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 가진 자는 복지수혜자들을 위해서 세금만 내지 말고 자신이 먼저 배운 “고기 잡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칠 의무까지도 부과하고 있다.

31) 처칠 수상은 가벼운 생각으로 비버리지(Beverage)에게 영국의 복지제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도록 용역을 주었다. 그러나 비버리지는 <비버리지 보고서>로 알려진 거대한 복지플랜을 제시했다. 처칠은 원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 보고서를 보고 놀라서 보수당에 토론을 맡겼다. 보수당 사람들은 그 플랜을 사회주의라고 여기고 그 보고서를 거부했다.(Cockett, 1995)

32) 몽펠린 소사이어티 학술회의에서 복지정책을 투입해야 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를 추진할 것인가가 문제라는 점에서 모두 일치된 생각이었다.(민경국, 2011: 83; 민경국, 2011a:

30) 하이에크에 의하면 사람들이 안정에 대한 욕구가 증가했는데 이를 무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업자의 생계나 빈곤에 대한 대비책은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 VI. 맺는 말: 보수주의의 허와 실

이 글은 보수주의라는 정치적 개념을 서구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규명하면서 그것을 자유주의 이념과 비교한 것이다. 보수주의는 자유주의와 공통점 보다는 상이한 점이 더 많다.

(1)자유주의와 보수주의는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집단주의적 개혁을 공동의 적으로 생각한다.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이유가 상이하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념이다. 이는 자유주의가 어떤 현실적인 이유로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다.<sup>33)</sup> 포기한다면 더 이상 자유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단주의적 통제의 확대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사회주의를 반대한다. 그러나 보수주의는 자유주의보다 자유를 덜 챙기는 이념이다.

<표-1>: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비교

	자유주의	보수주의
최고의 가치	개인의 자유(재산권)	기존 질서의 안정 (현행 헌법질서)
인식론적 입장	비판적 합리주의(합리주의)	반(反) 합리주의
정의	절차적 정의(정의의 규칙) (성과원칙: 결과지향적 소득결정)	능력주의(meritocracy):공로원칙 (투입지향적 분배원칙); 사회적 책임론 귀족주의(aristocracy): 노블레스 오블리지
사회관	자생적 질서	인위적 질서; 유기체(위계질서)
국가관	제한적 정부 (limited government)	강한 정부(strong government); 가부장적 국가
정치	원칙의 정치 (큰 시장 작은 정부); 헌법119조 1항 존중	실용주의; 기회주의; 규제받는 시장; 헌법119조 1항과 2항 존중 <sup>34)</sup>
복지	시장법칙을 최소로 침해는 복지정책	온정주의, 한계가 부정확한 복지정책
적(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민주의

보수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개인의 자유나 재산권이 아니라 기존 질서의 안정이라는 가치이다. 집단주의적 개혁은 기존의 질서에 대한 위협이요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을 가져오리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개혁을 반대한다. 재분배를 반대하

33) 그 이유는 지식의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보수주의는 지식의 문제 때문에 기존의 질서를 수호하려고 한다. 그리고 자유를 제한하려고 한다. 자유를 통해 생겨날 변화의 두려움 때문이다.

34) “전수된 헌법”이라는 차원, 기존의 헌정질서라는 차원에서에서는 1항과 2항을 전부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와 적절한 소득분배 등에서 사회민주주의 가치가 내포되어 있다 이들은 능력주의 사회와는 다른 가치이다.

는 이유도 자유주의는 재산권 그 자체의 침해 때문이다. 그러나 보수주의는 기존의 질서의 안정에 해가 되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면 언제든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기존의 사회질서의 안정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제V장 3절 참조).

(2)자유주의나 보수주의는 인간들은 다양한 차원에서 서로 상이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보수주의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들의 우열을 구분하고 엘리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전통적 보수주의는 귀족주의(aristocracy)를 전제했다. 현대에서는 보수주의는 능력주의(meritocracy)이다. 이는 능력과 도덕적 공로가 지위나 소득 분배를 결정해야 한다는 분배정의이다.

따라서 보수주의 사회는 엘리트의 자만심과 거드름을 조장한다. 이를 잠재우기 위해 생겨난 개념이 ‘노블리스 오블리지(nobles oblige)’이다. 현대적 표현이 부자의 사회적 책임이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행동을 막고 어떤 특혜나 특권도 인정하지 않는 정의의 규칙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에서는 경제적 성공과 지위는 개인의 행동의 도덕적 성격이 아니라 개인의 행동의 성과나 능력이 수요자들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에 달려있다. 자유사회는 소득결정이 능력주의 사회처럼 투입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결과(성과)지향적이다.

그리고 자유사회에서는 경제적 성공과 지위는 노력, 능력, 성실성 등만이 아니라 운이나 우호적인 경제상황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등산가가 에베레스트 등정의 성공이 순전히 노력과 능력 성실성 등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운과 날씨, 산사태 등과 같은 자연적 상황 등에 의해서도 좌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따라서 자유사회에서는 못난 사람도 운이 있거나 유리한 경제적 상황을 만나면 성공할 수 있다. 이 같은 성공 요인을 고려한다면 자유사회에서는 부자나 권세가가 우쭐대거나 거드름 필 어떤 근거나 이유도 없다. 권세가와 부자의 겸손을 요구하는 것이 자유주의이다.

자유사회는 때로는 선하고 때로는 악할 수 있으며 때로는 재능이 있고 때로는 어리석은 사람 등,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사회이다. 자유주의자는 성공한 자들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지’ 또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기도 어렵다. 그들에게 보호받은 특권도 없고 분배적 위계도 유동적이고 부의 축적은 이에 해당되는 대가를 지불

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3) 보수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개인주의의 기본원칙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의 확대와 개인주의는 혼란을 야기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질서와 시장경제는 지혜로운 정부의 의식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보수주의가 그 같은 믿음을 갖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장경제의 자기 조정 메커니즘에 관한 이론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자생적인 힘을 이해하는 이론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보수주의 정책은 원칙의 정치가 아니라 실용주의적이고 때로는 기회주의적일 수밖에 없다.(줄푸세의 원칙과 747의 실용주의). 그래서 보수주의의 정책은 이익단체 정치의 희생물이 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4)보수주의는 국가 없이는 안정적인 사회질서가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그래서 “강한 정부(strong government)”를 요구한다. 국가 없이는 도덕도 불가능하고 개체성도 의미가 없다고까지 말한다. 국가는 법의 정당성의 원천이라고 말하여 법실증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현명하고 선한 정부(엘리트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유감스럽게도 보수주의의 성공여부는 그 같은 정부의 존재여부에 달려있다. 그러나 보수주의의 가부장적 국가 개념은 정치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인식의 부족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의 악행을 최소로 줄이게 할 수 있는 체제이다. 이것이 작은 정부 큰 시장이다. 강한 정부가 아니라 “제한된 정부(limited government)”가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정부형태이다.

(5)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하기 위한 이론이 없기 때문에 보수주의 정책은 원칙이 없다. 선한 정부의 재량적인 손에 맡겨버렸다. 원칙 없는 보수주의 정책은 실용주의나 기회주의로 흐를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큰 정부 작은 시장을 불러온다.

(6)흥미롭게도 보수주의에서 복지정책은 결코 낮은 것이 아니다. 복지정책은 보수주의 정치가로서 영국의 처칠(Churchill) 수상과 독일의 비스마르크(Bismark) 재상에

서 볼 수 있듯이, 온정주의 국가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보수주의의 당연한 정치적 아젠더이다. 그러나 보수주의의 치명적인 결함은 복지정책이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을 설정하지 못한 점이다. 유감스럽게도 ‘따뜻한 복지,’ 자본주의 4.0. 또는 온정적 보수주의(compassionate conservatism)도 복지정책의 경계선이 분명하지 못하다.

그 경계를 분명히 하지 못한 이유가 현명하고 선한 가부장적 정부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의 권력을 제한해야 할 당위성을 알지 못한다. 공공선택론의 인식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공선택론의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수주의의 복지정책은 정치적 선동가들이나 위선적인 개혁가의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그 경계를 분명하게 정한 것이 자유주의이다. 복지정책은 시장법칙을 최소로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자유주의의 헌법적 원칙이 복지정책이 넘어서서는 안될 경계선이다.

결론적으로 보수주의는 사회민주주의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이 이념들과의 이념전쟁에서 자유주의와 동맹지만, 그러나 보수주의는 자유주의의 전제로서 개인주의의 기본원칙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이념이다.

그리고 사회이론(자생적 질서이론; 공공선택론)이 없기 때문에 통일되고 체계적인 보수주의 이념이 성립될 수 없으며 확고한 정책의 원칙을 확립하기도 어렵다.

## 참고문헌

- 강정인(외)(2010) 한국정치의 이념과 사상, 후마니타스
- 남시욱(2006) 한국 보수세력연구, 나남 출판
- 민경국(2007), 자유주의의 지혜, 아카넷
- (2004),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위즈비즈
- (2011), 신자유주의 이념의 역사적 기원과 공공정책적 어젠다, 경제와 제도 제5권 2호
- (2011a) 신자유주의 이념의 역사적 기원, 하이에크 월레포럼 발표논문,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집
- (2009), 다윈이즘과 하이에크의 문화적 진화론. 2009년 7월 한국과

학철학회 주최 <다윈200주년 기념 학술대회> 논문집

양동안(2011) 사상과 언어, 북앤피플

슈메이커, 폴 (2008/2010) From Ideologies to Public Philosophies, 한글판 진보와  
보수의 12가지 이념, 후마니타스 2010

유원일(2011) 대한민국헌법, 사회민주주의와 통하였는가? 민주당 국회의원 유원일  
사회민주주의연대 주체 토론회 자료집

최 광(2011) “ 개념과 이념의 오류 및 혼란과 국가 정책”, 『제도과 경제』  
제5권 2호

한스 헤르만 호페(2001/2004).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 자유기업원 나눔출판

Agre, Ph. E.(2004) What Is Conservatism and What Is Wrong with It?  
<http://polaris.gseis.ucla.edu/pagre/conservatism.html>

Barry, N. P. (1987) The New Right, New York

Bell, D(1976),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New York

Buchanan, J.M.(2005) Why I, too, am not a Conservative, Sheltenham,

Cockett, R.(1995). *Thinking the Unthlikable* London

Hartz, L. (1953).The Liberal Tradition of America, Florida

Hayek, F. A.(1960/1998 I) Constitution of Liberty, Chicago 1960 한글판 자유헌  
정론 I 자유기업원 1998

-----(1960/1998 II) Constitution of Liberty, Chicago 1960 한글판 자유헌  
정론 II 자유기업원 1998

-----(1973).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1: Rule and Order. London

-----(1978)Law, Legislation and Liberty, Vol. 3: Political Order for Free People

-----(1979)The Counterrevolution of Science: Studies on the Abuse of Reason,  
Indianapolis

-----(1988)The Fatal Conceit, London

Kirk, R.(1953/2001) The Conservative Mind, Washington. D. C.

Kristol, I(1978), Two Cheers for Capitalism, New York

Nisbet, R. (1986/2007) Conservatism Open University, 한글판 『보수주의』 이후

O'Hara, K. (2011). Conservatism, London

Scruton R.(1981) The Meaning of Conservatism Harmondsworth